



# STL MARKET REPORT

## Weekly Focus No.193

**Updated April 3, 2018**

The STL Market Report covers major issues affecting the world S&P market and provides an outlook for the market developments. The report provides a detailed analysis of key developments impacting S&P market trends.



### Contents

Market Overview	1
Issue & Trend	3
Bulk Carrier	8
- BC Sales Report	
Tankers	12
- Tanker & Container Sales Report	
Demolition	16
Key Indicators	18
Useful Information	20
Contact Information	22

\*\* 본 자료는 각종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내, 외신 자료와 언론보도를 종합하여 작성하였습니다.  
법적책임 소재의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 I . MARKET OVERVIEW

### 1. 신조선 시장동향

대우조선해양은 대한해운과 유럽의 한 선주로부터 총 3 척의 VLCC 를 수주했다. 이들 선박의 계약 규모는 총 2 억 6,000 만달러 수준으로, 경남 거제 옥포조선소에서 건조돼 2019 년 말까지 선주 측에 인도될 예정이다. 대우조선해양은 이번 수주로 올해 LNG 운반선 8 척, VLCC 8 척, 특수선 1 척 등 총 17 척 약 21 억 8 천만달러 상당의 선박을 수주, 올해 목표(73 억달러)의 약 30%를 달성하며 1 분기를 마무리했다.

한편, 조선업계가 오랜기간 인도하지 못한 선박 처리에 나서고 있다. 현대중공업은 지난 2006 년 TMT 사로부터 32 만 DWT VLOO(복합운반선, Very Large Ore Oil carrier)을 수주받아 2011 년 완성했다. 하지만 TMT 가 지난 2013 년 자금난으로 파산을 신청하면서 현대중공업은 건조 대금을 받지 못했다. 현재 이 선박은 현대중공업 울산공장 조선소에 배치돼 울산지방법원 관리를 받고 있다. 현대중공업은 이 선박을 오늘 6 월 중순께 경매에 부친다.

삼성중공업과 대우조선해양은 지난 26 일 각각 시추선 2 척씩 건조 계약을 해지했다. 노르웨이 시추기업 시드릴이 지난 2013 년 7 월 삼성중공업과 대우조선에 각각 2 척씩 발주한 물량이다. 시드릴은 지난 2014 년부터 진행된 저유가 여파로 경영난을 겪자 이미 발주한 선박의 인도를 연기해왔다. 지난해 9 월 미국 연방법원에 회생계획안을 제출하면서 회생절차가 진행 중이다. 계약 해지에 따라 두 조선소는 계약금의 일부를 선수금으로 물취하고, 시추선 소유권을 갖게 되면서 매각을 통해 잔금을 확보할 수 있게 됐다.

### 2. 벌크선 시장동향

케이프 용선료가 약세를 이어가는 가운데 지난주 BDI 지수는 1055 포인트로 올해 최저를 기록하였다.

중고선시장은 케이프를 제외한 전선형에서 고르게 거래가 이루어졌다.

캄사르막스 "BBG AMBITION" (82,108 DWT, BLT 2009 TSUNEISHI ZHOUSHAN)이 그리스바이어에게 1,900 만 달러에 매각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선박은 2016 년 3 월에 "F.D. ISABELLA"라는 선명으로 920 만 달러에 거래되었다. 수프라막스 "SANTA MARGHERITA" (53,260 DWT, BLT 2005 NEW CENTURY)는 870 만 달러에 중국바이어에게 매각되었다. 이 선박 역시 2016 년 3 월에 360 만 달러에 현선주에게 매각되어, 2 년만에 매각차익을 크게 남긴 경우이다.

## I . MARKET OVERVIEW

---

### 3. 탱커선 시장동향

부활절 휴일로 인해 탱커선 시장은 움직임이 더욱 둔화된 모습이다.

1994 년 건조된 MR 탱커선 "MAHIKA" (36,457 DWT, BLT 1994 SESTRI/ITALY)가 320 만 달러에 매각된 것으로 알려졌다. 스테인리스스틸 탱커선 "DREGGEN"(19,994 DWT, BLT 2008 FUKUOKA)이 1,575 만 달러에 한국 선주에게 매각된 것으로 알려졌다.

### 4. 해체선 시장동향

해체선 시장은 여전히 탱커선 거래가 주를 이루고 있다. 지난 몇주간 파키스탄의 탱커선 수입재개에 대한 기대로 탱커선 거래량이 급증했지만 파키스탄의 상황이 지지부진하면서 점차 거래량이 둔화되는 모습이다. 해체업자들이 대형선 수입으로 인한 금융부담이 커지면서 탱커선 처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듯 하다. 이미 거래된 상당량이 탱커선이 6 월 몬순시즌이 시작되기 전까지 모두 소화가 가능할지 우려된다.

수에즈막스 탱커서 "DS WARRIOR" (21,772 LDT, BLT 1998)가 싱가포르 딜리버리 조건으로 LDT 당 USD 440 에 매각되었고, 아프리카막스 탱커선 "PACIFIC TRADER" (16,668 LDT, BLT 1998)이 인도/파키스탄/방글라데시 딜리버리 옵션으로 LDT 당 USD474 에 매각되었다. GAS FREE FOR HOT WORK 조건으로 매각되어 좋은 선가를 받은 것으로 보인다.

## II . ISSUE & TREND

### 1. 장금·흥아해운 통합, 근해 선사 구조조정 신호탄 되나

국내 대표 근해(近海) 선사인 장금상선과 흥아해운의 컨테이너 정기선 부문 통합으로 한국 해운 구조조정이 본격화됐다. 해운업계에서는 원양 1 선사, 근해 1 선사로 재편될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30 일 해운업계에 따르면 장금상선, 흥아해운이 내년 말을 목표로 추진 중인 컨테이너 부문 통합법인에 현대상선의 아시아 부문까지 합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현대상선은 두 회사의 통합법인과 높은 수준의 전략적 협력 관계를 유지하면서 운영 상황을 지켜본 뒤 통합에 참여할 것으로 보인다. 현대상선과 장금상선, 흥아해운은 지난해부터 'HMM+2K'로 협력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현대상선 관계자는 “장금상선과 흥아해운이 합친 이후 상황을 보고 참여할 수도 있지만, 아직 결정된 것은 없다”며 “당장은 아니지만 통합을 장기 과제로 가져갈 수 있다”고 했다.

해운업계에서는 장금상선과 흥아해운의 통합법인에 현대상선 아시아 부문이 합쳐지면 다른 근해 선사와의 통합에도 속도가 붙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현대상선, 장금상선, 흥아해운은 다른 선사의 통합법인 참여를 제한하지 않기로 했다.

통합 대상이 될 수 있는 근해 선사는 한국해운연합(KSP)에 참여하고 있는 고려해운, 남성해운, 동영해운, 동진상선, 두우해운, 범주해운, 천경해운, 태영상선, 팬오션, 한성라인, 팬스타 등 11 곳이다. 다만 장금상선, 흥아해운보다 규모가 큰 고려해운은 통합법인 참여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장금상선·흥아해운 통합법인이나 고려해운 중심으로 근해 선사들이 헤쳐 모이면 결국 1~2 곳만 남을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원양선사는 현대상선과 SM 상선 두 곳 밖에 없다.

해운업계에서는 생존을 위해서라도 선사 간 통합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정부뿐 아니라 업계에서도 아시아 역내 항로에서 서비스하는 선사가 많아 공급이 과잉이라는 지적에 동의하는 분위기다. 근해 선사들이 위기 극복을 위해 자발적으로 통합에 참여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글로벌 해운업계는 선사 간 통합이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다. 특히 중국과 일본은 '1 국가 1 선사' 체제로 전환했다. 중국은 2016년 자국 내 1·2위 선사였던 COSCO와 차이나쉬핑(CSCL)을 합쳤다. COSCO는 홍콩 OOCL까지 흡수합병하면서 프랑스 선사 CMA·CGM을 제치고 세계 3위로 올라섰다. 일본 선사 NYK, MOL, K 라인 등 3사는 컨테이너 부문 통합법인인 'ONE' 출범을 앞두고 있다. 선복량 148만 TEU 규모로 세계 6위에 올라서는 ONE은 4월 1일 정식 출범한다.

## II . ISSUE & TREND

### 2. 中 1·2 위 조선소 합병 가능성...韓 빅 3 영향은?

중국이 양대 국영 조선소를 합병해 세계 최대 규모의 조선사를 만들려는 계획이 전해지며 국내 조선업계에도 파장이 예고되고 있다.

블룸버그통신은 지난달 30 일 중국 국무원이 중국선박중공집단공사 (CSIC)와 중국선박공업집단공사 (CSSC)의 합병을 예비승인했다고 보도했다. 양사의 연매출을 합하면 약 810 억달러로 예상된다. 현재 한국 조선 빅 3 라고 불리는 현대중공업·삼성중공업·대우조선해양의 합산 매출보다 두 배 이상 많은 수치다. 영국의 조선·해운 분석기관인 클락슨 리서치의 조사에 따르면 양사의 통합 수주잔량은 올 2 월 기준 1040 만 CGT(표준화물선환산톤수)로 현재 세계 1 위인 현대중공업의 772 만 CGT 를 크게 웃돈다.

중국이 국영 조선소들의 통합에 나서는 것은 규모의 대형화를 통해 해외 선주들로부터 신뢰성을 얻기 위한 행보라는 게 조선업계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선주들이 대형 조선사를 신뢰하는 경향이 있는 만큼, 그동안 자국 내 수주에 머물던 중국 조선사들이 앞으로 글로벌 선주들을 공략하며 고부가가치 선박 시장에서 한국 기업들의 경쟁자로 급부상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CSIC 는 중국 내 첫 초대형유조선(VLCC) 조선사고, CSSC 는 중국 최초 LNG 선용 조선소다. VLCC 와 LNG 선 모두 한국 조선소들의 주 선종이다. 특히 CSSC 는 한국 기업들이 참여하지 않는 크루즈선을 설계·건조할 계획도 있어 고부가가치 선박시장에서 영향력이 더 커질 것으로 관측된다.

앞서 중국 조선사들은 중국 내부에서의 압도적인 발주를 통해 세계 선박 건조량에서 약 40%를 독점할 정도로 압도적인 1 위를 차지해왔다. 그러나 2010 년 이후 글로벌 불황으로 인해 경기가 어려워지자 중국 정부가 주도적으로 구조조정을 실행했다.

중국 정부가 경쟁력 있는 기업만 지원하겠다는 뜻을 밝히고 수익을 내지 못하는 조선소에 대해 보조금 지급을 중단하자 다수 조선사들이 폐쇄했다. 이 과정에서 국영 기업인 CSIC 도 지난 2016 년 산하에 두고 있던 6 개 조선소를 3 개로 통폐합했으며, 코스코와 차이나쉬핑 등 중국의 국적 해운사도 보유하고 있던 조선소를 통합해 중원해운중공을 출범시키기도 했다.

이렇게 중국이 경쟁력 있는 기업을 중심으로 '빅딜'을 주도하고 있는 것에 비해, 한국 조선업계도 같은 시기 구조조정을 진행했으나 각 기업들의 '각자도생'에 머물며 중앙 컨트롤타워의 부재에 대한 아쉬움이 제기되고 있다. 그동안 지난 정권에서부터 최근까지도 공공선박 발주 및 선박금융 등의 내용을 담은 지원책을 여러 차례 마련해 왔으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비판이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는 것.

## II . ISSUE & TREND

업계 관계자는 “중국 조선소들은 국영기업이기 때문에 구조조정과 인수합병 등 경영에 있어 정부가 주도할 수 있으나 한국은 민영기업이기 때문에 정부가 강력하게 규제할 수 없다”며 “우리도 조선업계 전반에 대한 지원 대책과 경쟁력 강화를 위한 구체적인 정부·기업 간 소통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 3. 부산 초미세먼지 전국최고수준... ‘병커 C 유 사용’ 선박 대책 부심

해풍이 부는 해양도시인데도 초미세먼지(PM-2.5) 농도는 전국 최고 수준인 부산이 미세먼지 저감 대책에 총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2일 부산시에 따르면 지름이 2.5  $\mu\text{m}$  이하인 부산의 초미세먼지 농도는 최근 3년간 평균 26~27  $\mu\text{g} / \text{m}^3$ 로 전국 7대 도시 중 최상위권이다. 이는 연간 부산항에 입항하는 선박 1만 5,500여 척의 엔진에서 나오는 병커 C 유 등의 배기가스 때문인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실제로 국립환경과학원의 초미세먼지 배출원별 조사결과 선박 등 항만이 46.1%, 도로 재비산 및 자동차 배기가스 22.9%, 공사장·나대지 먼지 16.3%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초미세먼지는 기관지나 폐포에 깊숙이 침투하기 때문에 미세먼지보다 더욱 해로워 1급 발암물질로 분류돼 있다.

이에 따라 부산시는 배출원별 저감 대책 지속추진, 측정소 확충과 모니터링 강화, 대기질 상황 및 행동요령 신속전파 등의 종합대책을 마련했다. 시는 부산항만공사와 함께 2022년까지 경유를 사용하는 부산항 부두의 야드 트랙터 658대와 관공선(공공선박) 7척에 대해 액화천연가스(LNG) 엔진으로 교체키로 했다.

또 배출 기준치인 황 함유량을 현재 3.5%에서 0.5% 이하로 대폭 강화해 2020년 배출 규제 해역을 지정하고, 부두에 정박한 선박들의 전력 사용을 위한 육상 전력공급시설을 설치해 나가기로 했다. 정박 및 묘박 중인 선박들은 자체 전력을 쓰기 위해 운항하지 않으면서도 계속 엔진을 가동해 배출가스를 내뿜는다.

도로 재비산 먼지 저감을 위해 시는 전용 제거차량을 내년까지 50대로 확충하고, 건설기계 230대의 엔진도 교체해 나가기로 했다. 측정소도 지금보다 6곳을 늘려 모두 29곳을 가동하고, ‘대기질 알리미’

## II . ISSUE & TREND

19 곳과 버스 정보안내기 450 곳도 추가 설치한다. 주의보·경보 발령 시 대기오염물질 배출업소 2,457 곳과 특별관리공사장 155 곳에 대해 연료 사용량 감축과 일부 공사중지 등을 요청할 계획이다. 서병수 부산시장은 “미세먼지 대책에 총력을 다하고 있으니 시민들도 대중교통 이용하기, 자동차 공회전 줄이기 등 생활 속 실천사항을 조금씩 준수해줬으면 좋겠다”고 당부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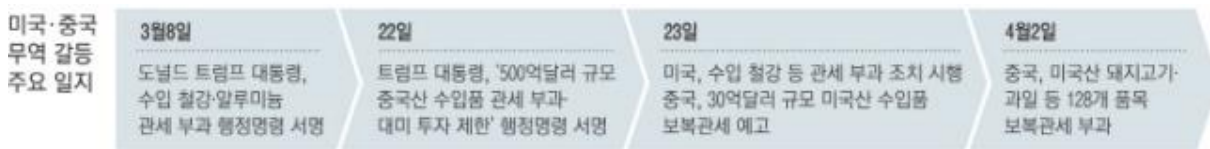
### 4. 중국, 미국산 돈육·과일 등 128 개 품목에 보복관세

중국이 자국산 철강·알루미늄에 대한 미국의 관세 폭탄에 미국산 농산물을 겨냥한 고율 관세 부과로 맞대응을 시작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핵심 지지층인 이른바 ‘팜 벨트(농장지대)’를 정면으로 겨누는 것이다.

중국 재정부는 2 일부터 돼지고기와 과일 등 미국산 수입품 128 개 품목에 대해 고율관세를 부과했다. 돈육과 폐알루미늄 등 8 개 품목에 대해서는 관세를 25% 인상하고 과일·견과 등 120 개 수입품에는 15%의 관세를 신규 적용한다. 규모가 30 억달러(약 3 조 1,698 억원)에 달하는 이번 조치는 중국산 철강·알루미늄 제품에 대한 미국의 고율관세 부과에 대한 대응이다.

지난달 23 일 상무부는 128 개 품목을 두 부문으로 나눈 단계적 관세 부과 계획을 예고했지만 열흘 만에 동시 발효에 나섰다. 상무부는 “지난달 23 일 양허관세 중단 리스트를 발표한 후 31 일까지 여론을 청취했다”면서 “많은 국민이 전화와 e 메일 등으로 지지를 표명했고 일부는 더 강한 조치를 해야 한다고 건의했다”고 밝혔다.

환구시보는 2 일자 사설에서 “이번 조치는 중국이 미국의 비합리적인 보복 관세 조치에 대한 맞대응 의지를 분명히 보여준다”면서 “미국이 중국의 이익을 훼손하는 행동을 할 때마다 중국도 미국에 똑같은 피해를 입힐 것”이라고 했다. 미국이 500 억달러 규모의 세금 폭탄에 대한 세부 계획을 공개하면 중국도 미국의 조치 정도에 따라 추가 보복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 II . ISSUE & TREND

이번 조치를 두고 중국이 미국에 대한 전면적 무역전쟁에 돌입하기보다는 강력한 경고 메시지를 날린 것이란 분석이 많다. 중국은 “자국의 이익이 훼손되면 필요한 대책을 취하겠다”고 경고하면서도 “무역전쟁은 원하지 않고 중·미 협력만이 유일한 올바른 선택”이라는 점을 부각시켜왔다. 대화와 협상으로 풀자는 것이다.

중국은 세계무역기구(WTO) 틀 안에서 대응하고 있음을 강조한다. 상무부는 이날 “미국에 대한 일부 의무 이행 중단은 WTO 회원국으로서 정당한 권리”라며 “미국이 조속히 WTO 규정 위반 조치를 철회하고, 중·미 양국 간 관련 상품의 무역이 정상궤도로 돌아오기를 바란다”고 촉구했다. CNN은 “중국은 트럼프 대통령의 공격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싶어 하면서도 세계 경제 질서에서 좋은 이미지를 유지하고 싶어 한다”고 분석했다.

그럼에도 미·중 간 무역 갈등과 긴장은 당분간 높아질 가능성이 크다. 월스트리트저널은 “트럼프 정부는 이르면 이번주 안에 중국의 지식재산권 침해에 따른 관세 부과 대상 리스트를 공개할 것”이라며 “정부 관계자들이 반도체, 통신, 항공 하이테크 분야의 1300 개 품목을 살펴보고 있다”고 전했다.

중국의 이날 조치에는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달 22일 서명한 500억달러(약 54조원) 규모의 중국산 수입품에 25% 관세 부과, 대미 첨단산업 투자 제한 등에 대한 대응은 포함되지 않았다. ‘맞불 조치’의 핵심으로 꼽히는 미국산 대두(메주콩)도 명단에서 빠졌다. 향후 협상 카드로 쓰기 위해 남겨둔 것이란 관측이다.

양국이 걸으면 으르렁대지만 물밑에서는 협상 노력도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스티븐 므누신 재무장관은 최근 폭스뉴스 인터뷰에서 “우리는 무역전쟁을 두려워하지 않지만, 무역전쟁이 우리의 목표는 아니다”라며 “중국과 매우 건설적인 대화를 하고 있으며 합의에 이르기를 희망하고 있다”고 밝혔다. 므누신 장관은 수주 안에 중국 방문도 고려하고 있다고 월스트리트저널은 전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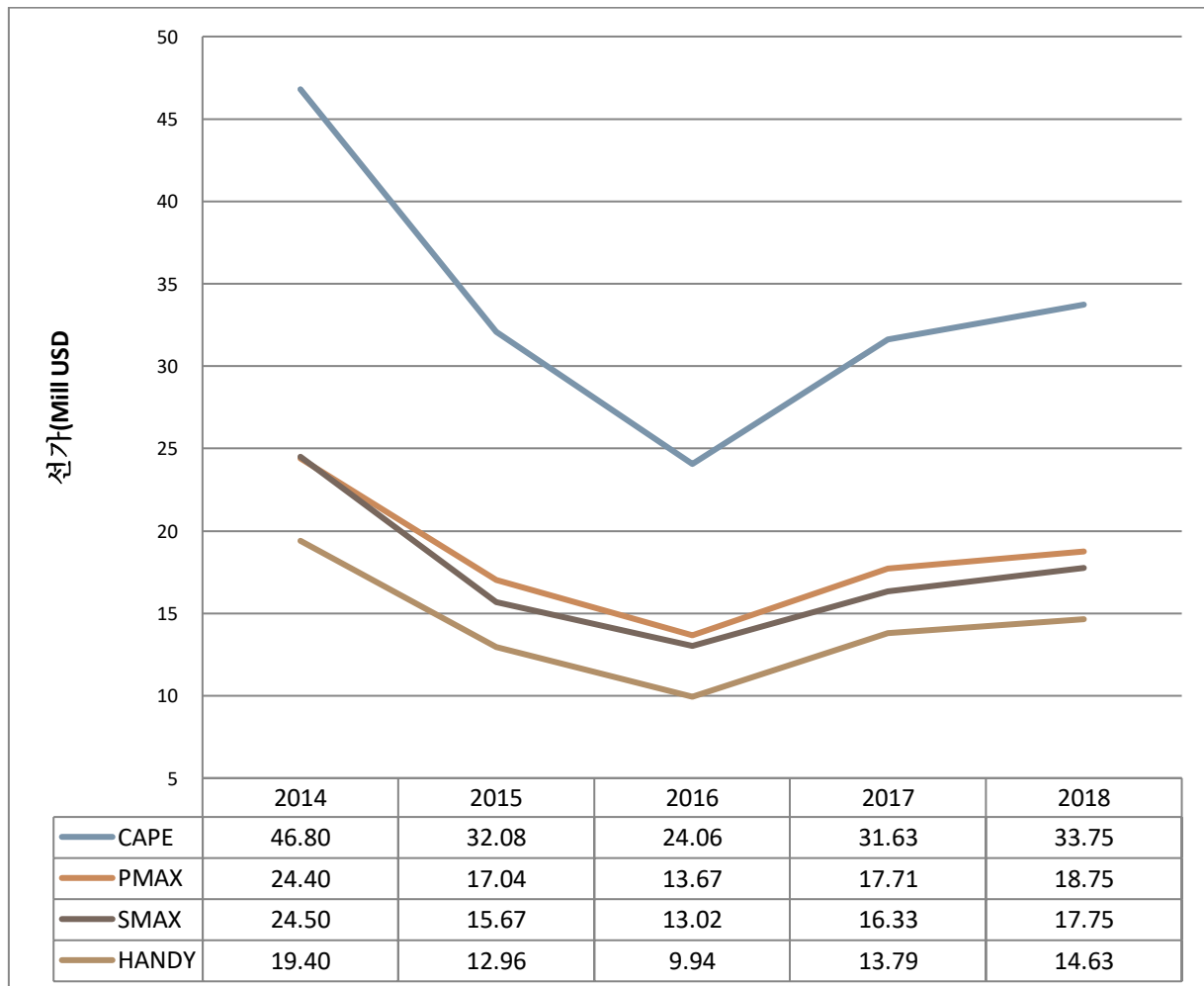
### III. BULK CARRIER

(◆선령 5 년기준, Million USD, 증감율 : 전년도 대비,%)

연평균 선가	2014	2015	2016	2017	2018
<b>Capesize 180K</b>	46.80	32.08	24.06	31.63	33.75
	28.81%	-31.45%	-24.99%	31.43%	6.72%
<b>Panamax 76K</b>	24.40	17.04	13.67	17.71	18.75
	13.27%	-30.16%	-19.80%	29.57%	5.88%
<b>Supramax 56K</b>	24.50	15.67	13.02	16.33	17.75
	14.84%	-36.04%	-16.91%	25.44%	8.67%
<b>Handysize 32K</b>	19.40	12.96	9.94	13.79	14.63
	9.04%	-33.20%	-23.32%	38.78%	6.04%

#### □ BC 연평균 선가 - 선령 5 년 기준

(◆선령 5 년기준, Million USD)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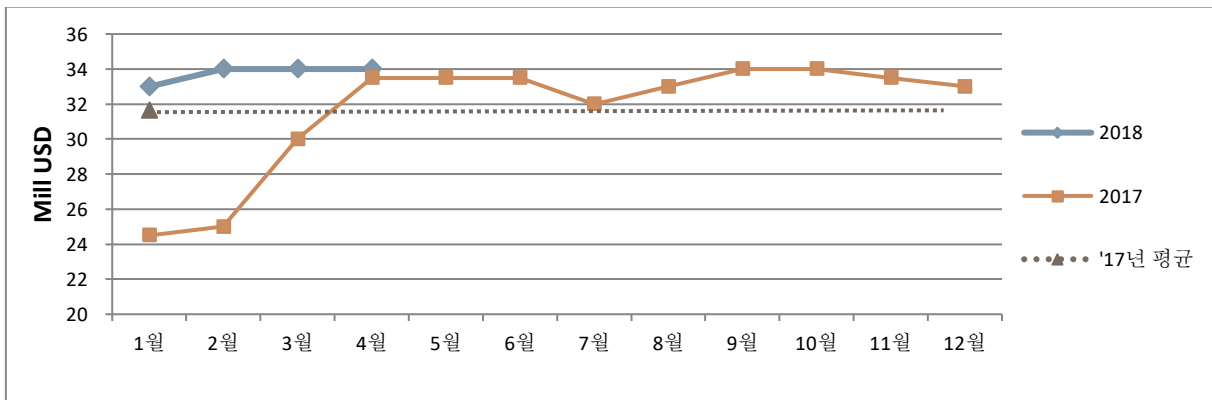




## III . BULK CARRIE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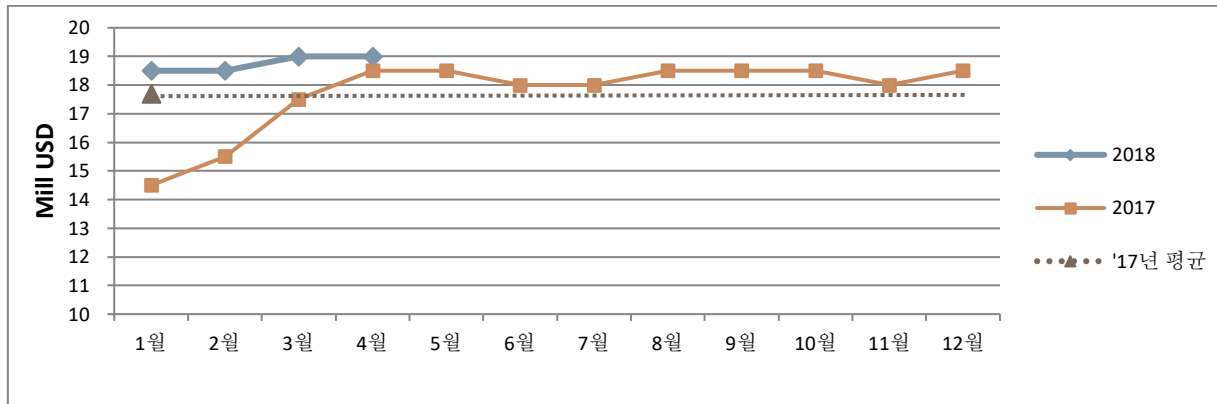
구분		1 월	2 월	3 월	4 월	5 월	6 월	평균	
2018	CAPE 180K	선가	33.00	34.00	34.00	34.00			33.75
		전월대비	0.0%	3.0%	0.0%	0.0%			-
		전년대비	34.7%	36.0%	13.3%	1.5%			6.7%
	PMAX 76k	선가	18.50	18.50	19.00	19.00			18.75
		전월대비	0.0%	0.0%	2.7%	0.0%			-
		전년대비	27.6%	19.4%	8.6%	2.7%			5.9%
	SMAX 56k	선가	17.50	17.50	18.00	18.00			17.75
		전월대비	0.0%	0.0%	2.9%	0.0%			-
		전년대비	20.7%	16.7%	12.5%	5.9%			8.7%
	HANDY 32k	선가	14.00	14.00	15.00	15.50			14.63
		전월대비	0.0%	0.0%	7.1%	3.3%			-
		전년대비	7.7%	3.7%	11.1%	10.7%			6.0%
2017	CAPE	24.50	25.00	30.00	33.50	33.50	33.50	31.63	
	PMAX	14.50	15.50	17.50	18.50	18.50	18.00	17.71	
	SMAX	14.50	15.00	16.00	17.00	17.00	16.50	16.33	
	HANDY	13.00	13.50	13.50	14.00	14.00	14.00	13.79	

### □ Cap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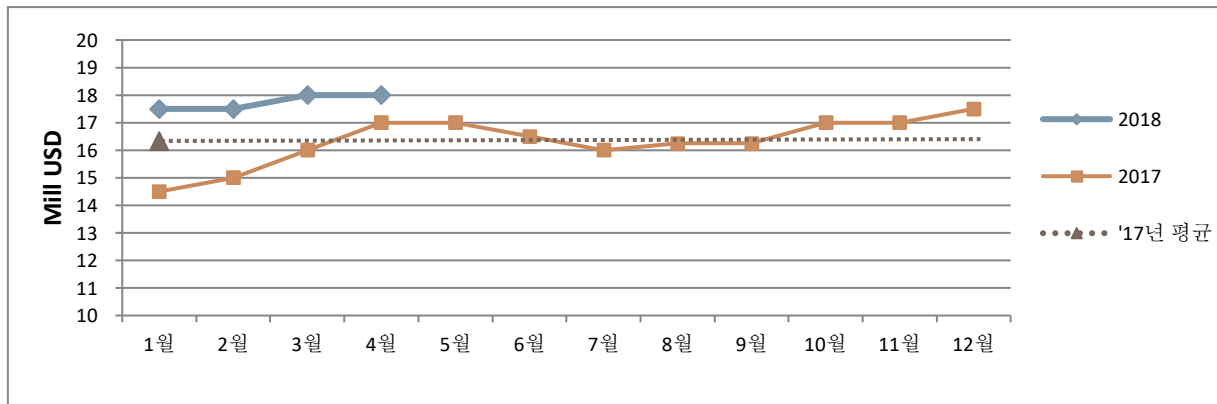


### III . BULK CARRIE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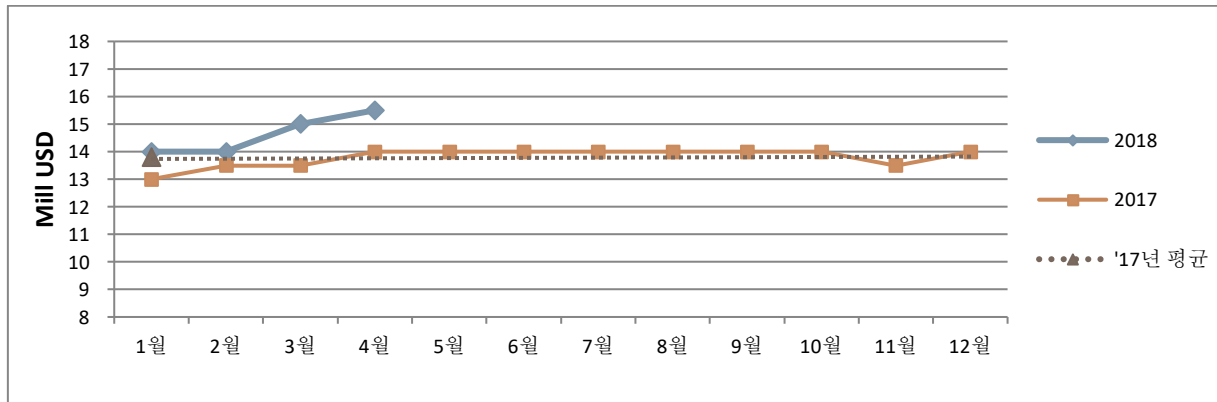
#### □ Panamax



#### □ Supramax



#### □ Handy



### III . BULK CARRIER

#### III-1. Bulk Carrier Sales Report

TYP E	VESSEL	DWT	BLT	YARD	M/E	GEAR	PRICE	REMARKS
BC	NADINE VENTURE	93,000	2011	CHINA	B&W		17.5	Ukrainian buyers (Profyship)
BC	BBG AMBITION	82,191	2009	CHINA (JPN)	B&W		19	Greek buyer
BC	OCEAN VISION	81,502	2015	CHINA	B&W		24	Greek buyer(Kassian), BWTS fitted
BC	ANNABELL	75,200	2010	CHINA	B&W		14	Undisclosed buyer
BC	THRUSH	53,389	2011	CHINA	B&W	C 4x35t	11.3	undisclosed buyer
BC	SANTA MARGHERITA	53,260	2005	CHINA	B&W	C 4x36t	8.7	Chinese buyer
BC	BERING LIGHT	50,292	2008	INDONESI A	B&W	C 4x35t	11.75	Undisclosed buyer
BC	ORIENT LIGHT	50,292	2008	INDONESI A	B&W	C 4x35t	11.75	
BC	SSI SPRING	32,576	2007	JAPAN	MITSU	C 4x30.5t	10.5	Far Eastern buyer
BC	NORTH WIND	29,084	2011	CHINA	B&W	C 4x30t	8.8	Italian buyer, Log fitted
BC	SOUTH WIND	29,033	2011	CHINA	B&W	C 4x30t	8.8	
BC	OMICRON WAY	28,107	2001	CHINA	SULZ	C 4x30t	5.1	Chinese buyer, Log fitted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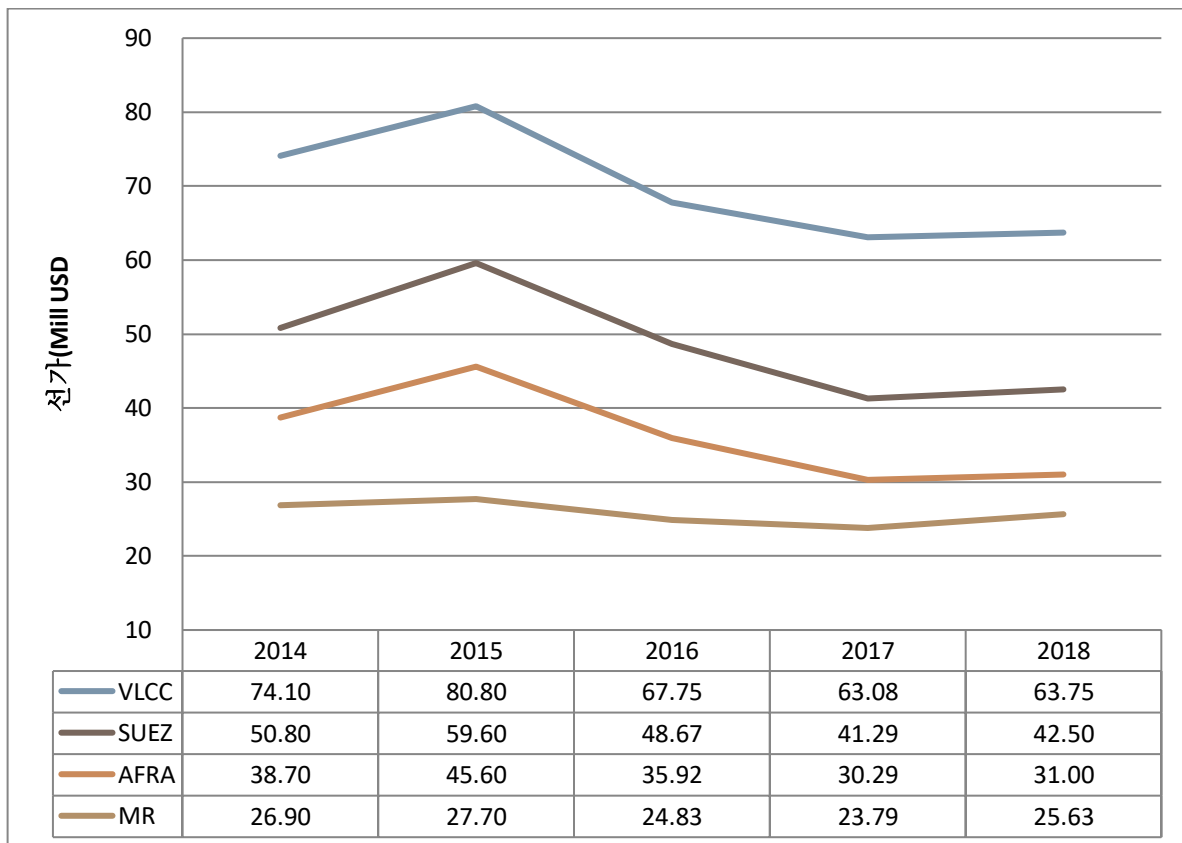
## IV. TANKER

(◆선령 5 년기준, Million USD, 증감율 : 전년도 대비,%)

구분	2014	2015	2016	2017	2018
VLCC 310K	74.10	80.80	67.75	63.08	63.75
	32%	9%	-16%	-7%	1.1%
Suezmax 160K	50.80	59.60	48.67	41.29	42.50
	27%	17%	-18%	-15%	2.9%
Aframax 105K	38.70	45.60	35.92	30.29	31.00
	33%	18%	-21%	-16%	2.3%
MR 47K	26.90	27.70	24.83	23.79	25.63
	2%	3%	-10%	-4.2%	7.7%
Chemical Tanker IMO II 13K	13.00	12.60	13.92	12.42	12.56
	9%	-3%	10%	-10.8%	1.2%

### □ TANKER 연평균 선가 - 선령 5 년 기준

◆선령 5 년기준, Million USD, 증감율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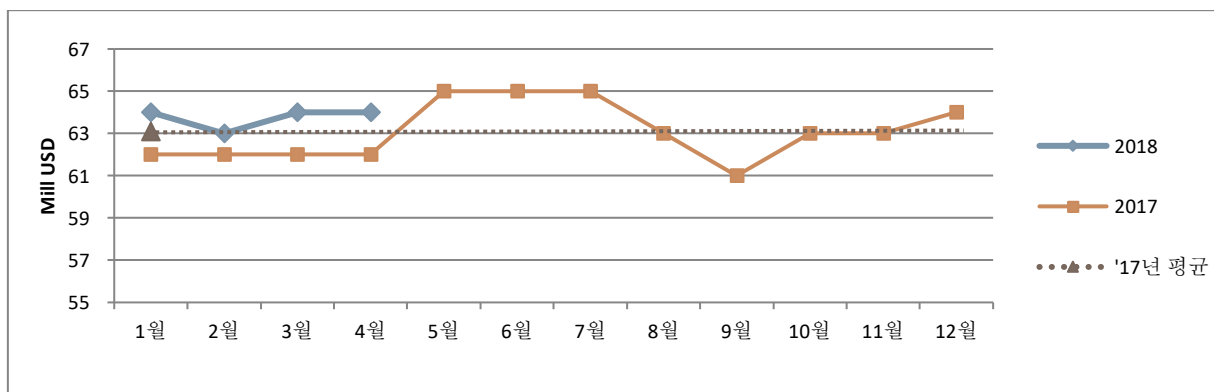




### IV. TANKE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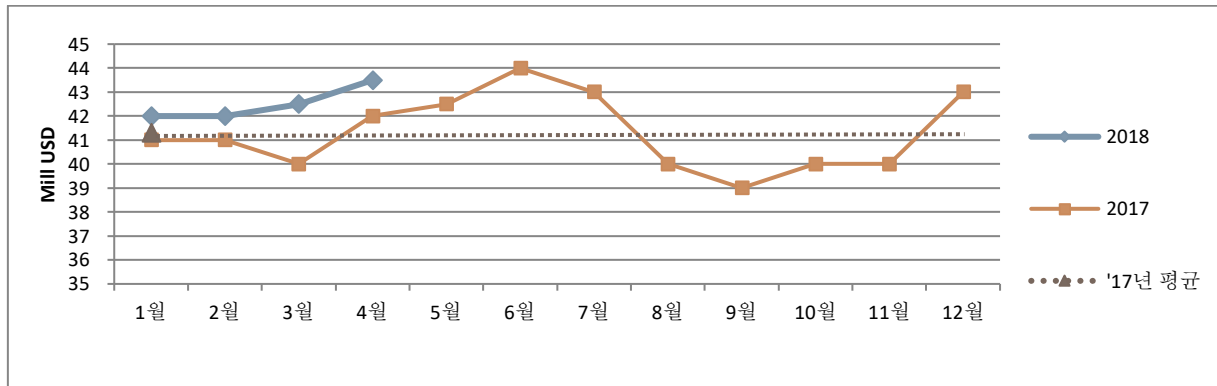
구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평균	
2018	VLCC 310K	선가	64.00	63.00	64.00	64.00			63.75
		전월대비	0.0%	-1.6%	1.6%	0.0%			-
		전년대비	3.2%	1.6%	3.2%	3.2%			1.1%
	SUEZ 160K	선가	42.00	42.00	42.50	43.50			42.50
		전월대비	-2.3%	0.0%	1.2%	2.4%			-
		전년대비	2.4%	2.4%	6.3%	3.6%			2.9%
	AFRA 105K	선가	32.00	30.00	31.00	31.00			31.00
		전월대비	0.0%	-6.3%	3.3%	0.0%			-
		전년대비	6.7%	0.0%	8.8%	3.3%			2.3%
	MR 47K	선가	25.00	25.00	26.00	26.50			25.63
		전월대비	0.0%	0.0%	4.0%	1.9%			-
		전년대비	11.1%	11.1%	15.6%	10.4%			7.7%
CHEM IMO2 13K	선가	13.00	12.50	12.50	12.25			12.56	
	전월대비	0.0%	-3.8%	0.0%	-2.0%			-	
	전년대비	6.1%	4.2%	-2.0%	-2.0%			1.2%	
2017	VLCC	62.00	62.00	62.00	62.00	65.00	65.00	63.08	
	SUEZ	41.00	41.00	40.00	42.00	42.50	44.00	41.29	
	AFRA	30.00	30.00	28.50	30.00	31.00	31.00	30.29	
	MR	22.50	22.50	22.50	24.00	25.00	25.00	23.79	
	CHEM	12.25	12.00	12.75	12.50	12.75	12.50	12.42	

#### VLCC-310K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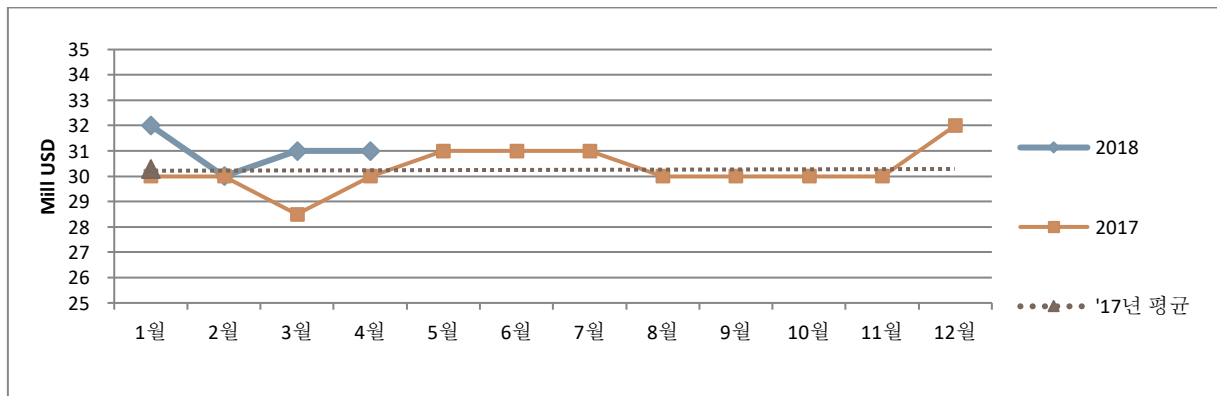


## IV. TANKE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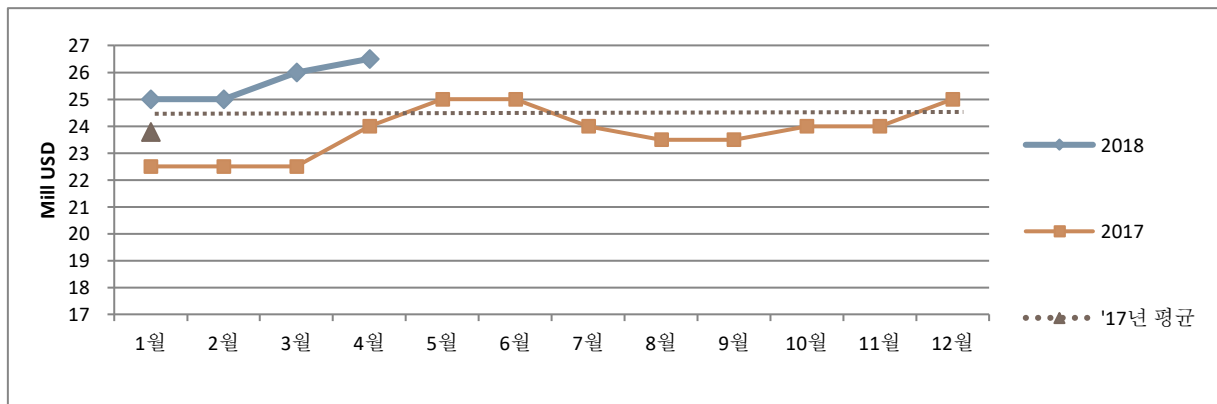
### □ SUEZMAX-160K



### □ AFRAMAX-105K



### □ MR-47K



## IV. TANKER

### IV-1. Tanker Sales Reported

#### 1) TANKER

TYPE	VESSEL	DWT	BLT	YARD	M/E	IMO	PRICE	REMARKS
TANKER	MAHIKA	36,457	1994	ITALY	SULZ		3.2	undisclosed buyer
OIL /CHEM	DREGGEN (stst)	19,994	2008	JAPAN	B&W		15.75	Korean buyer
OIL /CHEM	SAN PIETRO	7,594	2012	CHINA	B&W		8.5	Canadian buyer (Coastal Shipping)

#### 2) CONTAINER, REEFER, ETC

TYPE	VESSEL	DWT	BLT	YARD	M/E	CAPA	UNIT	PRICE	REMARKS
CONT	TRF PRAIA	42000	2009	CHINA	B&W	3534	TEU	12.6	German buyer (MPC)
CONT	ST. JOHN ARK	13555	2014	CHINA	B&W	1070	TEU	8	Undisclosed buyer
CONT	SAINTY VOGUE	13800	2013	CHINA	B&W	1070	TEU	8	
CONT	GUANGZHOU WENCHONG GWS487	21900	2018	CHINA	WAR T	1700	TEU	22.5	Korean buyer
MPP	CLIPPER MARLENE (heavy lifter)	17538	2001	CHINA	WAR T	962	TEU	6.2	undisclosed buye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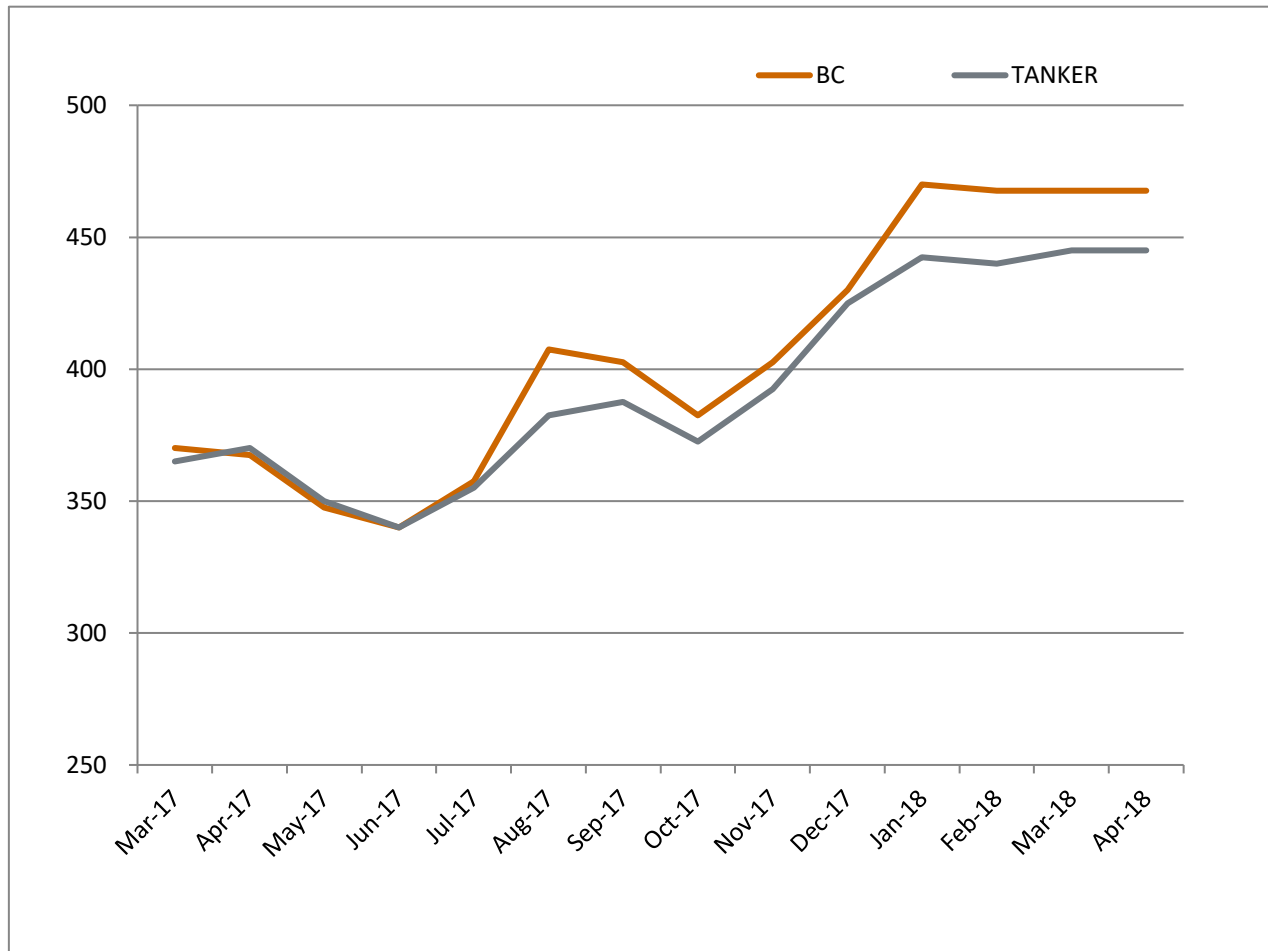


## V. DEMOLITION

### 1) 선가

해체선가 (US\$/LDT)	2016 평균		2017 평균		2018 평균		2017 년 3 월	2018 년 3 월		
		증감율 (전년대비)		증감율 (전년대비)		증감율 (전년대비)		증감율 (전월대비)	증감율 (전년대비)	
TANKER	265.63	-22.1%	365.21	37.5%	443.13	21.3%	370.00	445.00	0.0%	20.3%
BC	267.71	-20.5%	370.83	38.5%	468.13	26.2%	367.50	467.50	0.0%	27.2%

◆기준 : 인도해체선시장(USD/LDT), 증감율 (전년대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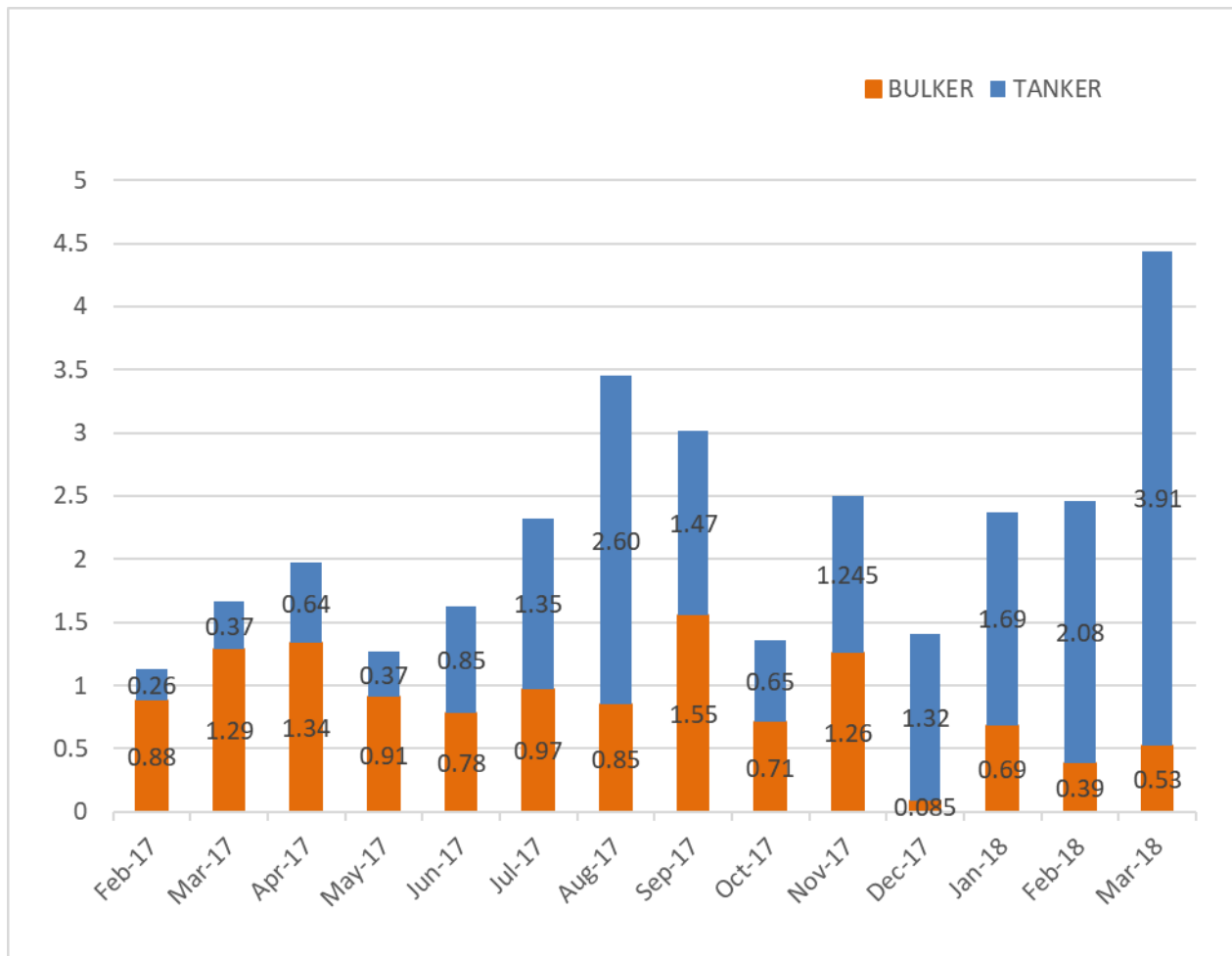


## V. DEMOLITION

### 2) 해체선누적현황

해체선 총량	2017 년		2018 년 누적			2017 년 3 월		2018 년 3 월				
	Million DWT	No.	Million DWT	누적율 (전년대비)	No.	누적율 (전년대비)	Million DWT	No.	Million DWT	증감율 (전년대비)	No.	증감율 (전년대비)
TANKER	11.47	113	7.68	67.0%	62	54.9%	0.37	9	3.91	957.8%	22	144.4%
BC	11.74	292	1.60	13.6%	30	10.3%	1.29	36	0.53	-59.2%	11	-69.4%

### 3) 해체선총량 (MILLION DWT)



## V . DEMOLITION

### V-1. Demolition Sales Repor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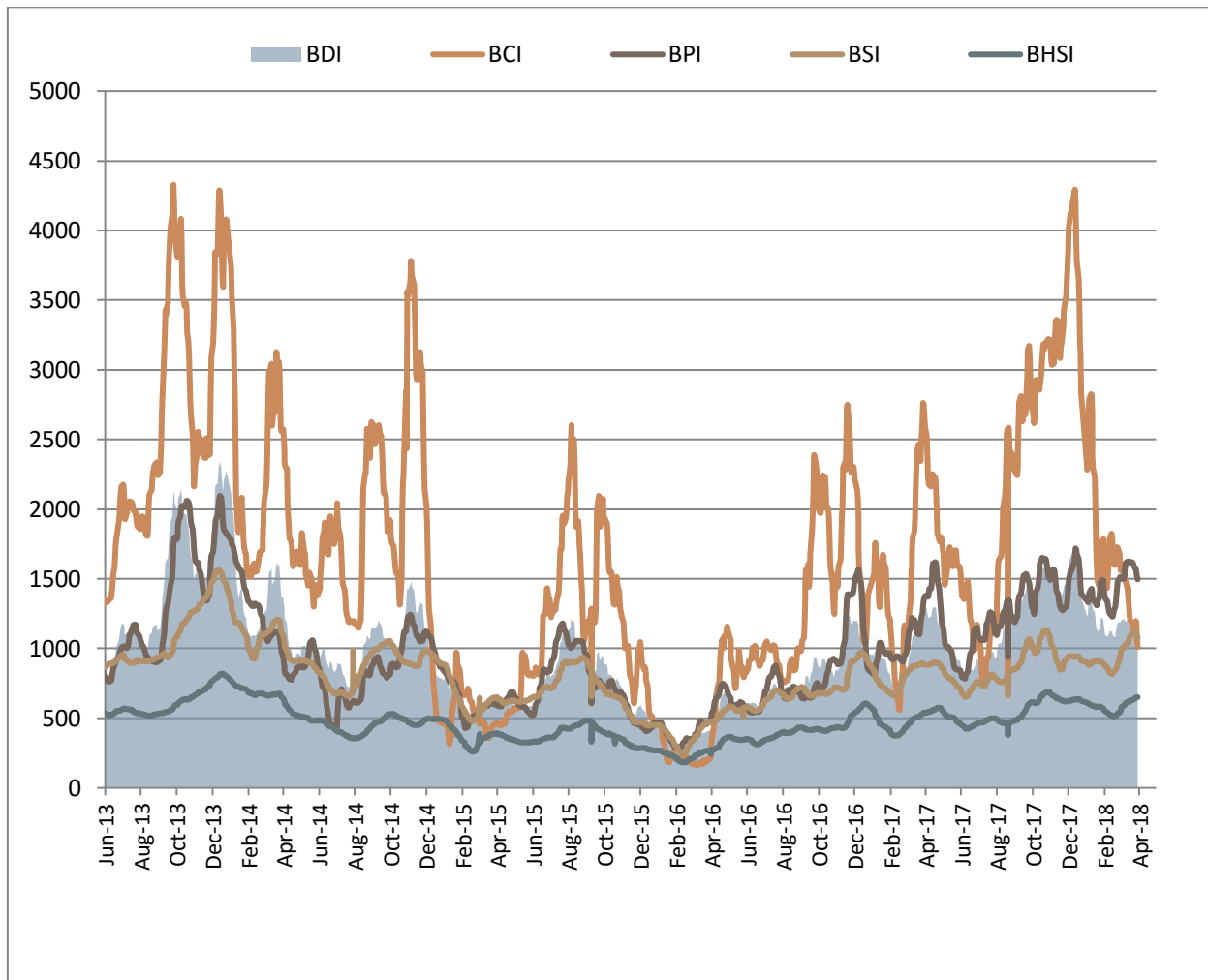
TYPE	VESSEL	DWT	LDT	BLT	YARD	M/E	PRICE (usd/ldt)	REMARKS
CONT	NINOS	18,253	5235	1990	JAPAN	B&W	478	AS IS Colombo
RO-PAX	RORO PRAYASTI	6,473	10829	1987	JAPAN	PIELS	410	AS IS Indonesia
RORO	WHITE NILE	12,905	5025	1979	DENMARK	B&W	259	AS IS Port Sudan
RORO	THAMEE HLA	9,801	3626	1991	JAPAN	B&W	436	BANGLADESH
TANKER	DS WARRIOR	153,409	21772	1998	KOREA	B&W	440	AS IS Singapore
TANKER	PACIFIC TRADER	105,176	16668	1998	KOREA	B&W	474	Full sub-conti Delivery, gas free for hot works
TANKER	BRIZO	86,549	16042	1996	KOREA	B&W	470	AS IS Singapore, gas free for hot work
TANKER	CHIMBORAZO	66,160	12198	1999	KOREA	B&W	441	BANGLADESH
TANKER	ASTER	47,803	9302	1996	JAPAN	B&W	461	BANGLADESH
OIL/CHEM	ARMADA GEMA	9,140	2771	1995	JAPAN	B&W	393	BANGLADESH
TANKER	DANAI 7	1,987	699	1988	JAPAN	MAK	340	BANGLADESH



## VI. KEY INDICATORS

### 1) Baltic Index

	2018-03-29	2018-03-23	CHANGE	5 Year High	5 Year Low
BDI	1055	1122	▼-67.00	2337	290
BCI	1010	1157	▼-147.00	4329	161
BPI	1495	1587	▼-92.00	2096	282
BSI	1080	1121	▼-41.00	1562	243
BHSI	652	641	▲11.00	821	183





## VI. KEY INDICATORS

### 2) Bunker Price (USD/TON, 전주대비증감)

(USD/Ton, Change)	Singapore		Rotterdam		Houston	
IFO380	382.00	▲4.00	363.50	▲1.00	360.00	▼-3.00
IFO180	411.50	▲4.50	393.00	▲0.00	421.00	▼-5.50
MGO	617.50	▲5.50	605.00	▲30.00	616.50	▲20.50

❖ 기준일 : 3 월 30 일 기준

### 3) Exchange Rate

구분	2018-03-30	2018-03-23	CHANGE
미국달러	1066.50	1069.20	▼-2.70
일본엔(100)	1001.46	1019.60	▼-18.14
유로	1311.95	1317.41	▼-5.46
중국위안	169.68	169.30	▲0.38

❖ 최초고시, 매매기준율기준

## VII. USEFUL INFORMATION

구분	행사명	일시	장소 (주최)	기타
포럼	11TH ANNUAL HONG KONG SHIP FINANCE FORUM	4.12(목)	Renaissance Harbour View Hotel, Hong Kong (MARINE MONEY)	<a href="https://www.marinemoney.com/forum/HK18">https://www.marinemoney.com/forum/ HK18</a>
포럼	SHIPOWNERS FORUM SINGAPORE 2018	5.22(화)	Marina Bay Sands Expo&Convention Centre (TRADEWINDS)	글로벌트레이딩 허브인 싱가포르에서 트레이더/차터러에게 중요한 이슈에 대해 다루고, 선주들의 관점에 대한 의견을 나눔.



## VIII. CONTACT INFORMATION

---

**Neal S.I. Kwon (권순일 상무)**

Senior Director

Tel. 070-7771-6410

Mob. 010-9496-0523

snp@stlkorea.com

neal@stlkorea.com (Personal)

**Leo J.M. Jung (정재문 부장)**

General Manager

Tel. 070-7771-6409

Mob.010-3273-4008

snp@stlkorea.com

leo@stlkorea.com (Personal)

**Claire C.W. Ji (지차욱 차장)**

Deputy General Manager

Tel. 070-7771-6411

Mob.010-6625-9785

snp@stlkorea.com

claire@stlkorea.com (Personal)



**STL GLOBAL Co., Ltd.**

101-1401, Lotte Castle President, 109, Mapo-daero, Mapo-gu, Seoul, Korea

Tel: +82-2-776-0840 (Rep.) Fax: +82-2-776-0864 TLX: K35476

E-mail: seoul@stlkorea.com

www.stlkorea.com